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한부모가족의 다차원적 빈곤과 젠더 격차 개선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박미진 부연구위원

한부모가족의 다차원 빈곤 현황과 대응방안

초록

- ◆ 한부모가족이 처한 어려움은 다양한 차원에 걸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빈곤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단선적인 한계를 지님.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첩적·복합적인 빈곤의 현황과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
-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한부모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양부모 가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보다 모든 지표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자산 빈곤의 격차가 가장 심각하였음.
- ◆ 또한 이러한 수치에 대해 그 경험적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한부모 가구주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대다수였음. 특히 건강이 취약한 경우 소득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각 차원별 빈곤 경험이 강력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남.
-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각 6개 차원별 정책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각 차원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차원에 천착하는 것만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해결되기 어려움을 강조함.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정부의 칸막이 행정을 극복해야 하고, 한부모 가구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함.

- ▶ 경제적 차원의 어려움을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의 비중이 2012년 30.4%에서 2015년 41.5%, 2018년 46.0%, 2021년 54.4%로 증가 추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중도 2012년 12.2%에서 2015년 13.5%, 2018년 32.8%, 2021년 45.8%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배호중 외, 2021: 57, 474).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월 245.3만원으로 양부모 가구의 평균인 416.9만원(통계청, 2021)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임.

● 한편 한부모 가구의 빈곤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경제적 빈곤은 비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궁핍함에 의해 가중, 중첩, 지속될 수 있기에 다중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오욱찬 외, 2020).

- ▶ 예컨대, 양부모 가구와 달리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는 두 성인이 하는 역할을 홀로 감당해야 하므로 항시 시간 빈곤에 시달리게 됨. 이러한 시간 빈곤은 자녀가 어릴수록 더욱 가중되며,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 참여를 제한하는 핵심 요인이 되기도 함(노혜진·김교성, 2010).
- ▶ 결국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갖거나,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주는 탈빈곤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로 귀결됨. 뿐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에 장기간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을 증식하거나 미래를 위해 자산을 축적할 여력이 없는 한부모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음.

● 이와 같이 양부모 가구에 비해 한부모 가구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단일 영역에만 초점을 두어 한부모 가구의 빈곤을 진단하고 있음.

- ▶ 단일 차원 영역에 대한 연구로는 정책영역별 격차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함.
- ▶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첩적·복합적인 빈곤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다차원적 빈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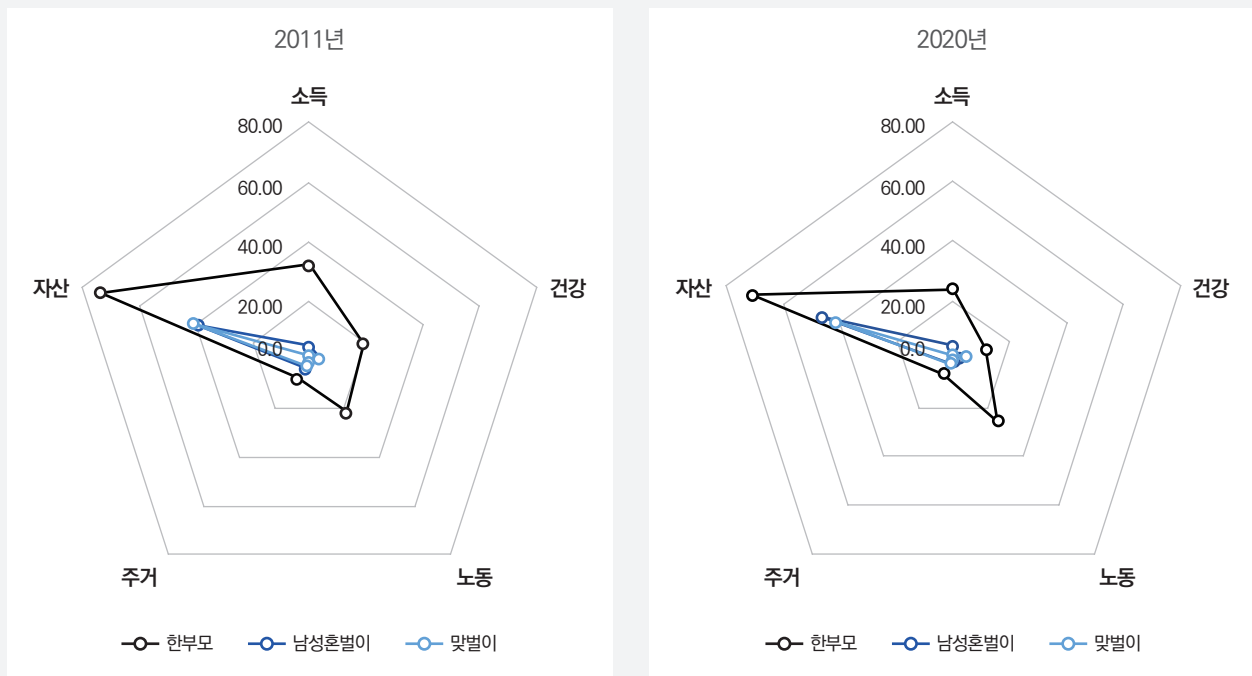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한부모 가구와 양부모 가구(남성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빈곤을 다차원으로 비교해 보았음. 이때 차원은 소득, 자산, 주거, 노동, 건강 다섯 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였고, 각각 소득빈곤, 자산빈곤, 주거비 과부담, 미취업, 건강 결핍을 대표적인 빈곤 지표로 측정하였음.

●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부모 가구의 빈곤은 다섯 가지 모든 차원에서 양부모 가구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났음. 특히, 다섯 가지 영역 중 자산 빈곤에서 가장 심각한 박탈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그러나 자산 빈곤은 한부모 가구뿐만 아니라 양부모 가구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이들 집단은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가구주가 대체로 자산을 충분히 형성하기 전인 낮은 연령대라는 점이 그 배경이 됨. 하지만 한부모 가구와 양부모 가구의 자산 빈곤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한부모 가구는 노동과 소득에서의 빈곤 수준도 높은 편인데, 이들 차원에서 양부모 가구는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것과 상반됨.
- ▶ 분석기간 초기인 2011년과 비교하면 한부모 가구의 다차원 빈곤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아래 제시한 방사형 그래프에서 한부모 가구의 면적이 줄어든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무엇보다 다섯 가지 차원 중 소득과 건강 차원에서 눈에 띄게 빈곤이 개선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그러나 노동 차원에서는 오히려 빈곤 수준이 증가하였는데,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1> 한부모 가구와 양부모 가구의 다차원 빈곤 비교

(단위: %)



주: 소득은 소득빈곤, 자산은 자산빈곤, 주거는 주거비 과부담, 노동은 미취업, 건강은 건강 결핍 비율을 제시함.

출처: 한국복지패널 7~16차 원자료 재분석

● **다음으로, 시간 빈곤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한부모 가구의 여가시간, 시간빈곤 및 시간압박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을 남성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됨.**

- ▶ 우선,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여가시간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며 시간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음. 모든 집단에서 아동의 연령은 여가시간, 시간빈곤, 시간압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여가시간은 줄어들고 시간빈곤 위험은 확연하게 높아지며, 시간압박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음.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임.
- ▶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시행되고, 초기 양육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무상보육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보편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어린 아동의 존재는 시간빈곤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이는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응함과 함께, 초기 양육기의 휴가 및 휴직제도의 사용률을 높이고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아동양육가구의 삶의 질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 ▶ 아동의 연령이 아동양육가구의 시간 수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시간적 대응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남성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여가시간, 시간빈곤, 시간부족 인식의 수준이 여성보다 변동 폭이 작게 나타났음. 특히, 남성은 가구유형에 따른 시간빈곤과 시간압박 수준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 양부모 가구인 남성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남성의 여가시간, 시간빈곤, 시간부족 인식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한부모 가구의 남성 또한 대부분의 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이는 아동양육 가구에서 남성이 적극적으로 양육과 가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문화적 기준이 되고 있는 사회에서, 남성이 양육과 가사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내정될 수밖에 없음.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남성의 양육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지속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간에 명확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음.**

- ▶ 시간압박 및 시간빈곤과 관련하여 가구소득 변수는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구소득이 최고소득층인 경우에만 일부 변수(남성의 시간빈곤 확률, 여성의 시간부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이러한 결과는 소득빈곤과 시간빈곤은 서로 다른 차원의 삶의 질 문제로, 각기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함.
-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현재 소득빈곤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차원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소득빈곤과 시간빈곤의 이중빈곤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한부모가족의 다차원적 빈곤 경험

●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구주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한부모 가구주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생활 경험과 지원정책 경험을 파악하였음.

- ▶ 면접 대상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남녀 한부모 가구주이자,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음.
- ▶ FGI는 총 5그룹(그룹별 4-5명)으로, 전체 인원은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한부모 가구의 실제 분포 현황 및 대상자 모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성 한부모 가구주 4그룹, 남성 한부모 가구주 1그룹으로 나눠 진행함. 여성 한부모 가구주 그룹의 경우 자녀 나이에 따른 정책 수급 경험이나 생활 경험을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영유아, 초등, 중고등, 대학생 자녀 그룹으로 구성하여 FGI를 진행하였음.

● FGI 수행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은 한부모 가구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음.

- ▶ 소득 빈곤 상황에 있는 한부모들은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 했던 여러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데, 면접참여자 중 다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탈수급된 경험을 하기도 했음. 수급자격이 박탈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부모 가구주들은 수급자격 박탈될까 하는 두려움과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경험하기도 함.
- ▶ 국민기초생활제도는 탈수급을 정책 목표로 하지만, 한부모 가구에게 탈수급은 위큰 각오와 결심이 필요한 것임. 이러한 상황은 한부모가구주로 하여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게 하는데,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되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한부모 가구주들은 자신의 노후와 한쪽 부모가 없는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자산을 형성해야 함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 하지만, 그들에게 자산 형성은 ‘언감생심’, 도무지 이루기 어려운 일로, 오히려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할 부채가 그들의 삶을 더욱 압도하였음.
- ▶ 일부 한부모 가족은 부채가 없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자산 형성을 꾀해보았지만, 기초생활수급이나 자활근로 등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격과 충돌되면서 이러한 꿈은 좌절되기도 하였음.

● 주거는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공간이자 기본 조건으로서 큰 의미가 있지만 한부모가 원하는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 여러 유형의 주거지원제도가 존재하지만 보증금 마련의 벽에 부딪혀 혜택을 입지 못하거나, 임대주택의 입지가 혼자서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합하지 않기도 하였음.
- ▶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바로 그 자녀가 바로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한부모 가족이 아니게 되면서 주거지원정책에서 제외되는데, 불안정한 주거는 부모와 성인 자녀에게 모두에게 영향을 주어 모두를 빈곤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한편 한부모 가구주들에게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음.

- ▶ 일자리의 유일한 선택 기준은 자녀 양육과 양립이 가능한 조건인지 여부지만 현실에서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음. 한 참여자는 우리사회에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니 결국 한부모가구주에게 결국 창업밖에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하였음.
- ▶ 자녀돌봄과 노동은 한부모 가구주가 모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양자는 한부모가족의 삶에서 어느쪽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호 대치되고 있음. 한부모 가구주는 자녀양육 대신 일자리를 선택했던 자신을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자리를 우선순위로 하는 등의 선택을 하며 삶의 매순간 갈등함.

● 한부모 가구주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자녀돌봄 시간임.

- ▶ 일하는 한부모 가구주는 노동과 자녀돌봄 사이 공백을 메우느라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하며, 그러한 삶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사치였다고 회고하였음.
- ▶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자녀돌봄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으며, 특히 얼마전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돌봄기관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은 가중되기도 하였음.

● 한부모 가구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임.

- ▶ 추가적인 돌봄자가 없이 생계와 돌봄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에게 건강까지 챙길 경제적, 시간적 여유는 없었음. 한부모들은 아픈 걸 참는 게 일상이며,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병원을 가게 된다고 진술함.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자녀를 돌봐줄 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선택 선택하기 어렵기도 함.
- ▶ 또한 자녀를 혼자 키우는 삶에 대한 불안감 외에도, 미혼 상태에서의 출산, 이혼, 사별 등의 생애사적 사건들로 인해 한부모들은 우울 등 정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 쉬움. 한부모들은 혼자 애쓰며 사느라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도 자녀에게 부족한 부모밖에 될 수 없는 상황에 자괴감을 경험하기도 함.

● 요컨대, 한부모 가구주의 소득, 자산, 주거, 노동, 시간, 건강의 빈곤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각 차원의 빈곤 경험은 개별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 ▶ 가령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음. 다른 자원이 없는 한부모에게 자녀돌봄과 양질의 일자리는 도무지 양립이 어려운 개별 영역으로 인식되었음.
- ▶ 또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탈수급의 위험을 걱정하며 이를 포기하는데, 이는 미래의 빈곤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 각 차원의 빈곤은 강력한 상호연결성을 가지면서 한부모가족의 삶에 복합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음.

● 소득 빈곤

●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자격 조건 확대 및 지원 체계 다층화

- ▶ 현재와 같이 단일한 저소득 한부모 지원기준을 통해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수의 한부모가족을 빈곤 상황에 머무르게 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빈곤의 장기화 및 빈곤의 대물림을 야기할 수 있음.

● 복지급여 중단 이전에 유예기간 적용

- ▶ 탈수급은 한부모가족에게 중요한 도전적 과제로서, 탈수급을 하더라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아동양육비 등 모든 복지급여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 완화와 적응을 위한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함.
- ▶ 장기간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며 살아온 한부모가 이러한 지원 없이 자립한다는 것은 매우 큰 결심이고 두려운 이벤트임이 틀림없음. 갑작스런 변화에 직면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중간지대를 마련하여 본인이 직접 탈수급을 감당하고 생애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 속에, 스스로 일자리를 모색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균형을 맞춰볼 수 있는 시기를 제공하여, 자녀의 입장에서라도 최소한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요구됨.

● 자산 빈곤

●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구를 위한 대안 마련

- ▶ 한부모가족에게 자산 형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득한 목표이며, 평생 따라다니는 빚이 그들의 삶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가구원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구 내 유일한 성인인 한부모 가구주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면 지원조차 해볼 수 없게 됨.
- ▶ 양부모 가구였다면 한 명이 신용불량 상황이라도 또 다른 성인이 지원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부모 가구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한부모 가구주의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

- ▶ 또 다른 문제는 한부모 가구주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임.

- ▶ 심층면접 결과, 탈수급으로 야기되는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한부모 가구주의 모습이 발견됐으며, 일부의 경우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자산을 일부 보험상품이나 타인 명의 등으로 이전하여 지하화하였음.
- ▶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이전에 수급 지위를 탈피 하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주거 빈곤

● 한부모와 자녀의 주거지원 제도 관련 연령 기준 개선

- ▶ 한부모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등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이 존재하지만, 최소한의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가 안정된 삶을 살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음. 민간단체에서 후원하는 보증금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은 한부모들은 보증금을 종자돈으로 하여 주거 안정의 기로에 들어설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한부모들은 여전히 월세 등 주거 관련 지출 부담이 줄어들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었음.
- ▶ 주거지원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보조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부모 가구에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이 준용되고 있었는데,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 후 7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을 차용하여, 한부모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했음.
- ▶ 한부모의 평균 연령대가 40대이고, 자녀도 중고등학생이 대다수인 현실을 고려할 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에게 특별 분양을 해준다는 정책은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임이 드러났음. 한부모의 평균 연령 및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설립하여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노동 빈곤

● 한부모 가구주의 취업 유지 수당 강화

- ▶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업 유지 수당을 강화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함. 한부모 가구주 입장에서 자녀 돌봄과 본인의 건강을 침해하면서까지 일자리를 찾아 나설 유인이 크지 않음. 미취업 상태로 각종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임.
- ▶ 하지만 근로경험 부족으로 인해 자녀가 성장하고 나서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장기 빈곤 및 노인 빈곤 가구로 연결될 위험성이 존재함. 직장을 갖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커리어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 유지 인센티브 등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함.

● 시간 빈곤

● 한부모 가구주를 위한 실질적 시간지원 제도 마련

- ▶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시행되고, 초기 양육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무상보육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보편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아동의 존재는 여전히 시간빈곤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 이는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응함과 함께, 초기 양육기의 휴가 및 휴직제도의 사용률을 높이고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아동양육가구의 삶의 질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 ▶ 최근 한부모의 시간 보장을 위해 육아휴직 특례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들(예: 복지제도가 좋은 직장에 근무)은 극소수에 불과했음. 한부모 가구주들이 여가 및 휴식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 적합성 높은 시간지원 제도가 필요함.

● 건강 빈곤

● 한부모 가구주 대상 정기적 건강 관리 및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의 건강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등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살필 여유가 없는 한부모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한부모 가구주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리 및 정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 특히 건강문제는 대부분의 한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이므로, 건강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음.

● 다차원 빈곤

● 한부모의 다차원적 컨설팅 지원

- ▶ 각 차원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차원에 천착하는 것만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해결되기 어려움. 다양한 차원의 결핍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경제적 영역과 비경제적 영역이 경계선 없이 서로 넘나들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음.
-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정부의 칸막이 행정을 타파해야 하고, 한부모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 심리 지원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어느 한 영역을 상담하는 것으로는 통합적인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존재함.
- ▶ 따라서 소득·자산·주거·시간·건강 등 전반적으로 한부모의 상황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참고자료

노혜진·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 188

배호중·정가원·박미진·선보영·성경(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욱찬·김수진·김현경·이원진·오다은(2020),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 정책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보도자료(2021.12.16.),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 rd?bmode=read&aSeq=415642 (검색일: 2022.10.31.)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